

한국학의 위상학

한국에서 열린 최초의 한국학 국제학술회의
(‘한국의 전통과 변천’, 1969)를 중심으로

옥창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박사과정 수료, 외교학 전공
okchangjoon@gmail.com

- I. 머리말
 - II. 합류되는 한국학
 - III. 배치되는 한국학
 - IV. 맺음말
-

2020년 6월 냉전학술사연구회, 10월 세계한국학대회 “한국학의 전통과 현대적 변모”에
서의 발표와 토론이 이 글의 초고 작성에 큰 도움이 되었다. 2016년부터 냉전학술사연구
회에서 냉전기 지식 체계의 형성과 재편 및 변동을 함께 공부해온 김인수, 김성은,
송은영, 신주백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익명의 심사자 3인의
세심하고 예리한 논평에도 감사드린다.

I. 머리말

1963년, *A Short History of Korea*라는 소책자가 일본에서 출간된다. 이 책은 일본 유네스코 산하의 동아문화연구센터가 책임 편집을 맡았고, 일본 이외 지역의 배급은 하와이대학교 산하의 동서문화센터 출판부가 담당했다.¹ 그러나 이 책은 출간 직후 한국과 일본 그리고 유네스코 본부가 지 얹히는 학술적 소동의 중심에 놓인다. 그 이유는 이 책의 저본이 1936년 조선총독부 문서과에서 발행한 『朝鮮史のしるべ』(조선사의 길잡이)였기 때문이다. 또 이 책의 저자는 바로 대표적인 '식민사학자'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였다.²

이 책의 출간을 뒤늦게 알게 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1967년 이선근 등에게 이 책의 오류를 세세하게 지적하는 서평 원고를 받았으며, 이 원고를 영어로 번역하여 유네스코 본부와 하와이대학교의 동서문화센터로 전송했다.³ 이에 책의 번역과 제작을 지원한 유네스코 본부는 본서의 재판과 보급의 중지를 요청하겠다는 서신을, 배급을 담당하던 동서문화센터는 본서의 추가 인쇄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보내왔

-
- 1 Centre for East Asian Cultural Studies, *A Short History of Korea*(Tokyo: East West Center Press, 1963).
 - 2 스에마쓰 야스카즈에 대한 학술사적 평가로는 신주백, 「末松保和(1904-1992)의 학술사와 식민주의 역사학: 한국사 학계의 엇박자의 원인을 찾아서」, 『동방학지』 183권(2018).
 - 3 「오류투성이 『한국소사』」, 《동아일보》, 1967년 3월 21일자. 이선근은 이 책을 즉각 폐기처분하고 한국인 학자나 기타 한국 관계 학자들을 동원하여 새로운 『한국소사』를 세계 각국어로 출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선근, 「『한국소사』를 읽고: 동서문화센터에 보내는 나의 몇 가지 질문(1967)」, 『민족의 이념과 진로』(희문출판사, 1989), 429쪽; 전해중도 비판적인 서평을 썼다. 전해중, 「서평: *A Short History of Korea*」, 『역사학보』 33권(1967).

다. 그리고 유네스코 본부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한국인 학자가 저술한 한국사 서적의 영어 번역을 1969-1970년 사업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⁴ 실제로 1970년에 손보기, 김철준, 홍이섭의 *The History of Korea*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출간되었다.⁵

*A Short History of Korea*와 *The History of Korea*의 내용과 구성을 전반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이 글의 직접적인 목표는 아니다. 오히려 이 글이 주목하는 현상은 이 두 책이 모두 전제하고 있는 특정한 공유 지점이다. 1960년대 중후반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부지불식 간에 일본 학계가 생산한 ‘조선사’ 저술을 영어로 번역한 것, 그리고 한국 학계도 영문 서적 편찬 사업을 통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모두 영어로 저술된 한국 관련 학술장(學術場)을 전제한다.⁶

하나 또 흥미로운 사실은 *A Short History of Korea*에 대한 비판적인 서평을 미국인 학자가 작성했다는 점이다. 훗날 저명한 한국학 연구자로 이름을 알리는 게리 레드야드(Gari Ledyard, 1932-)가 그 주인공이었다. 그는 이 책이 1936년 이후의 한국 관련 연구성과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매우 확실하게 일본적 편향을 지니고 있다고 혹평하며 이 책의 사소한 오류부터 역사적 오류까지 꼼꼼하게 지적했다.⁷ 한국인 학자가 저술한 영문으로 된 한국사, 그리고 식민사학의 오류를 지적할 수 있는 ‘외국인’ 한국학 학자의 존재는 한국학(Korean Studies)이라는 학술장이

4 「잘못 자인, 한국 향의 정당」, 《동아일보》, 1967년 6월 27일자.

5 Sohn Pow-key, Kim Chol-choon, Hong Yi-sup, *The History of Korea*(Seoul: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1970).

6 실제로 비슷한 시기에 한우근의 『한국통사』가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출간되었다. Han Wookeun, Lee Kyungsik trans., *The History of Korea*(Seoul: Eulyoo, 1970); 한우근, 『한국통사』(을유문화사, 1970).

7 Gari Ledyard, “A Short History of Korea”,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Vol. 85, No. 3(1965), pp. 456-458.

탄생하는 하나의 상징이었다.

이 글은 한국학(Korean Studies)의 형성이 한국과 미국 학계의 지적인 상호 교류를 통해 등장했다고 본다. 한국에서 축적되어온 ‘조선학’, ‘국학’의 문제의식에 기초한 ‘한국학’과 미국의 ‘Korean Studies’가 상호 소통하면서 한국학의 지위를 함께 형성해나간 것이다.⁸ 1969년 한국학 ‘국제’ 학술회의는 이와 같은 상호 소통의 양상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한국학 국제학술회의가 1960년대 후반에 열릴 수 있었던 배경으로 이 글은 1960년대 중후반의 한국과 미국 양국 학계의 변화와 발전에 주목한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한국학의 기원과 계보라는 외적인 맥락에 초점을 맞추어왔다면, 이 글은 실제 학술회의 발표문에 대한 내용 분석을 통해 한국학을 둘러싼 상호 소통의 구체적인 양상에도 주목할 것이다. 특히 한국학이라는 학문적 실천 안에서 한국의 자리와 위상이 어떻게 배치되고 있는지에 관심을 둔다.

8 물론 한국학 형성의 전체상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중국(대만), 일본, 러시아(소련) 그리고 유럽의 한국학 학계와의 교류도 연구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미국의 한국학 학계와의 교류를 주로 분석한다. 한국학의 기원에 대한 폭넓은 조망으로는 김경일, 「한국학의 기원과 계보: 한국과 동아시아, 미국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63권(2003); 냉전 지역학의 발전과 한국학의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채오병, 「냉전과 지역학: 미국의 헤게모니 프로젝트와 그 파열, 1945-1996」, 『사회와 역사』 104권(2014). 한국학의 배치라는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직접 연결되는 연구로는 장세진, 「라이샤워, 동아시아, ‘권력/지식’의 테크놀로지: 전후 미국의 지역연구와 한국학의 배치」, 『상허학보』 36권(2012).

II. 합류되는 한국학

1. 국학에서 한국학으로

경성제국대학으로 대표되는 식민지 아카데미즘의 조선학 연구, 그리고 민간 중심의 조선학 운동은 모두 국가가 부재한 상태의 학문이었다. 해방과 대한민국 수립 이후, 조선학 연구와 조선학 운동은 서서히 민족국가의 테두리 안의 ‘국학’(國學)으로 흡수·통합되어 나갔다.’ 국학의 남은 과제는 세계 학술계에서 학술적 차원의 성원권을 인정받는 일이었다.

그러나 한국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학문이 세계 학술계에서 자리를 부여받는 일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다. 한국이라는 주권국가의 등장만으로 한국학의 자리가 자연히 보장되지 않은 탓이다. 근대 동양학은 유럽 제국주의의 직접 지배를 받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했으며 그 중에서도 동아시아 지역을 다루는 경우, 중국과 일본 연구가 거의 전부였다. 이처럼 한국학의 위상은 그리 높지 않았고 연구의 축적도 부족했다.

또 일본 제국의 해체 이후 등장한 냉전 질서에서 자유 진영을 중심으로 한 세계 학술계의 공통어(lingua franca)는 영어였다.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한국인 연구자도 부족했고 영어로 된 한국 관련 연구나 자료집도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또 해외의 동양학계에서도 한문/한국어로 생산된 한국학의 1차 자료와 한국인 연구자들이 한국어로 작성한 2차

-
- 9 정중현의 표현을 빌리자면 탈식민화 이후 조선학 연구의 실증주의 방법론과 조선학 운동의 민족주의 이념은 밀착해 나갔다. 제도적으로는 서울대 문리과대학의 ‘한국학’ 관련 교수직이 조선어학회와 진단학회 회원들로 채워지고, 학문방법론으로는 민족주의와 결합된 실증주의가 학계의 주도적 학문 성향이 된다. 정중현, 『학풍』을 통해 본 ‘한국학’ 형성의 한 맥락, 『제국의 기억과 전유: 1940년대 한국문학의 연속과 비연속』(어문학사, 2012), 406-407쪽.

자료를 참고해야만 한다는 의식이 희박했다.¹⁰

그렇기에 국학은 한국이라는 주권국가의 테두리 바깥을 벗어났을 때, 그 존재 이유부터 증명해야 했다.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의 아류(亞流)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는 일은 국학이 세계 학술계의 일부인 한국학을 구성하려면 가장 시급하게 답해야 할 과제였다. 이는 한국인 연구자들의 연구만으로 쉬이 돌파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한국이 국제적으로도 유의미한 연구 대상이 되어야 했고, 한국 연구가 독자적인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기꺼이 인정하는 여러 국가와 전공의 학자군이 존재해야만 했다.

중요한 분기점은 한국전쟁이었다. 한국전쟁을 거치며 한반도의 상황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며 한국학의 발전의 토대가 본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후 한국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인물들이 미국 학계에서 한국학 연구(Korean Studies)를 시작했다. 1960년대 초반에 이르면 이들은 미국 학계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학과 관련된 강좌를 미국 대학에 설치했다. 이들을 통해 현대 한국학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한국의 ‘국학’과 해외의 ‘한국학’의 상호 작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미국의 한국학 학자들 역시 한국인 학자들과의 협력을 긴히 필요로 했다. “우리가 구미 학자와의 연결을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래에 와서는 구미에서 동양 연구에 종사하는 학자들도 동양 문제를 연구하는 동양인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싶어하고 또 상호 연구 성과를 교환하기를 원한다.”¹¹

10 이는 존 페어뱅크, 에드윈 라이샤위가 공저한 *East Asia: The Great Tradition*(1960)의 한국사 서술 방식에서도 잘 드러난다. 한국사 서술에 있어서도 한국어로 된 문헌이 참조되지 않았다. 이 책의 한국사 서술의 전거는 하타다 다카시(旗田巍)의 『조선사』(1951), Shannon McCune, *Korea's Heritage: A Regional and Social Geography* (1956), Cornelius Osgood, *The Koreans and Their Culture*(1951), In-Sob Zong, *Folk Tales from Korea*(1952)였다.

11 조기준, 「아세아를 바로보자: 아세아문제연구소 창립에 제하여(1957)」, 『나의 인

한국을 경험한 미국인 학자들과,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한국인 학자들이 이와 같은 협력 사업을 매개하는 중요한 행위자였다. 이들의 협력 관계를 통해 교수진의 상호 방문, 한국 관련 기본 자료 번역 사업, 한국어 및 한국 문화 대학 강좌 설치 등이 진행되었고, 해외의 한국학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준비된다.

1960년대 초엽에 이르면 해외의 한국학은 탐광을 위한 ‘개도’ 설치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굴진(掘進)’을 시작했다.¹² 한국에 체류하며,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나타났으며¹³, 한국을 주제로 다루는 외국인 학자들의 박사학위 논문도 속속 등장했다.¹⁴ 일본의 조선학과 한국의 한국학 사이의 이른바 ‘국교정상화’도 이루어졌다.¹⁵

1960년대 중반에 이르면 ‘Korean Studies’의 번역어인 ‘한국학’이라는 말이 한국 내에서도 유통되기 시작했다. 한국학을 내걸고 국내에서 관련 심포지움이 열렸으며¹⁶, 서울대학교에 한국학과를 설치하는 문제가 문교부 차원에서 정책안으로서 진지하게 논의되었다.¹⁷ 이기백의 『국사신문』(1961)이 이기백의 하버드대학교 엔칭연구소 체류 경험 이후 『한국사신문』

생, 학문의 역정』(일신사, 1998), 183-184쪽.

- 12 정병욱, 「굴진하려는 해외의 한국학」, 《동아일보》, 1963년 8월 16일자. 정병욱은 1962-1963년 하버드대학교 엔칭연구소에서 수학하고 있었다.
- 13 1963년 9월에 《조선일보》에 게재된 「학원의 이방(異邦)」 기사를 보라.
- 14 「한국 주제의 미국 학위 외국인박사록」, 《동아일보》, 1966년 9월 6일자.
- 15 정중현, 「‘조선학/한국학’의 국교정상화: 한국학자들의 ‘조선학회’ 연차대회 참가와 아시아재단의 지원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47권(2017).
- 16 1966년 11월 1일부터 4일까지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가 주최한 심포지움의 주제는 ‘한국학의 방법론과 체계’였다.
- 17 문교부안에 따른 한국학과 설치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는 서울대학교 사학과가 국사학과, 서양사학과, 동양사학과로 이른바 ‘3사과’가 분리되는 기점이 되었다. 문교부의 한국학과 설치에 대한 반대 논리로는 박성익(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소장), 「국사학과 독립이 옳다: 한국학과 신설에 대한 제언」, 《동아일보》, 1968년 9월 28일자.

(1967)으로 제목을 바꾸어 출간되는 일은 분명히 영어권 독자를 의식한 것이었다. 이는 국학이 Korean Studies를 의식하면서 ‘한국학’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이었다.¹⁸

2. 동양학에서 Korean Studies로

1960년대 중반 미국에서도 한국학 연구열이 불고 있었다. 1965년 4월 아시아연구협회(The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AAS) 회의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 모인 50여 명의 한국학 학자들은 운영진에게 아시아연구협회에 한국학 위원회(Committee on Korean Studies, CKS)를 설치해달라는 결의서를 채택했다. 아시아연구협회의 운영진은 이 결의서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마침내 이듬해인 1966년, 한국학 위원회의 독립이 이루어진다. 초대 위원장은 전(高)혜성 박사가 맡았다.¹⁹

1967년 4월 6일부터 7일까지 웨스트미시간대학교에서 미국 내 한국학 연구자들이 모이는 회의가 개최되어, 코리아(남북한)의 발전상을 각 분과 학문 별로 점검하는 학술회의(Problems and Promises in Developmental Research in Social Science on Korea)가 열렸다.²⁰ 같은 해 8월 미시간대학교에서 열린 제27차 동양학자대회(International Congress of Orientalists)에서는 한국학이 동양학의 독립분과(제9분과)로서 인정을 받으며 한국학을

18 이기백, 『한국사신론』(일조각, 1967), 3쪽. 이 서문은 하버드대학교 엔칭연구소 체류 시절 작성되었다.

19 Andrew C. Nahm, “The Development of Korean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1, No. 2(1971), p. 25.

20 이 회의의 발표문은 Andrew C. Nahm ed., *Studies in the Developmental Aspects of Korea*(Kalamazoo: Western Michigan University, 1969). 이 회의에 참석했던 빈센트 브란트와 펠릭스 무스는 1969년 한국학 국제학술회의에도 참석한다.

단독 주제로 한 소규모 회의가 열렸다.²¹ 동양학자대회에 참여했던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소장 이상은은 회의를 마치고 유럽과 아시아 여러 국가를 순방하며 각국의 동양학 관계 연구소를 시찰하고, 9월이 되어서야 귀국했다.²² 이 시기 이상은 소장은 한국학 관련 국제학술회의를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를 통해 개최하는 안을 염두에 두었을 것으로 보인다.²³

한편 사회과학연구협의회(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SSRC)-미국 학술단체협의회(American Council of Learned Society, ACLS) 산하에 한국학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 on Korean Studies, JCKS)가 1967년 6월 발족했다. 출범하자마자 한국학 공동위원회는 한국학 관련 기초 자료와 관련된 회의를 1967년 11월과 1968년 3월에 잇달아 개최했다.²⁴

1968년 6월 한국학 공동위원회 위원인 에드워드 와그너(Edward Wagner, 하버드대학교)와 조지 베크만(George Beckmann, 클레어몬트대학원)이 방한했다.²⁵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는 이 두 학자와 함께 한국학 국제

21 「이상은 교수 등 9명 참석」, 《동아일보》, 1967년 7월 22일자.

22 아세아문제연구소 엮음(집필자: 김태진),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년지』(아세아문제연구소, 1977), 21쪽.

23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는 한국에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데 최적의 기관이었다.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는 1965년에 대규모 국제학술회의인 '아시아의 근대화 문제에 관한 국제학술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Problems of Modernization in Asia)를 개최했으며, 1967년에는 포드 재단의 지원을 받아, 아세아문제연구소 산하 공산권연구실을 중심으로 공산권 연구를 진행 중이었다. 이미 여러 번 국제학술회의를 경험한 인물들이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에 대거 포진해있었다.

24 특히 한국학 공동위원회는 미국 내 한국학 관련 도서 수집 업무를 담당하는 도서관 사서를 모아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학 관련 자료의 문제는 그야말로 한국학의 '토대 사업'이었다. 이에 대한 분석은 김인수, 「1960-1970년대 한국학의 토대와 네트워크」, 『인문논총』 77권 3호(2020), 84-91쪽.

25 비슷한 시기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국제학술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한 세미나를 1968년 6월 충남 유성에서 개최했다. 조지 베크만 교수는 이 회의에 참석했다.

학술회의의 공동주최에 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했다. 한국학 공동위원회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는 모두 포드 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²⁶

1968년 10월과 1969년 3월에 한국학 공동위원회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는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해 총 30명 내외의 한국-미국인 학자를 초청하는 안을 논의했고, 1969년 9월 초 즈음에 ‘한국의 전통과 변천’이라는 주제 아래 대규모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²⁷ 회의의 취지는 다음과 같았다. “한국학 방면에 쌓아 올린 한국 학계의 업적과 차차 발전되어가는 미국 학계의 한국학 연구의 업적을 토대로 한미 양국의 관계학자 사이의 진지한 토론을 통한 절차탁마의 기회를 마련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²⁸

‘한국의 전통과 변천’ 학술회의는 국제학술회의라는 형식을 통해서 한국인 학자를 중심으로 성장해온 ‘국학’과 미국 학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연구의 일환으로서의 진행된 ‘한국학’이 전면적으로 대면한 자리였다. 이 사이를 적극적으로 증개한 인물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학자들이었다. ‘전통과 변천’이라는 학술회의의 주제 역시 매우 의미심장했다. ‘전통’은 한국이 중국, 일본과 구분되는, 혹은 중국, 일본에 버금가는 오랜 전통을 지닌 지역이라는 점을 밝히는 주제 설정이었다면, ‘변천’은 현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한국 유네스코 활동사: 1954-1975』(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76), 99쪽. 이에 대한 기사로는 「사회과학과 국제학술교류」, 《조선일보》, 1968년 6월 11일자.

26 1967년 포드 재단은 한국학 관련 연구에 565,000 달러를 책정한다. 하버드대학교, 컬럼비아대학교, 하와이대학교, 프린스턴대학교, 워싱턴대학교가 각 10만 달러를 받았고, 사회과학연구협의회가 나머지 65,000 달러를 지원받았다. 사회과학연구협의회는 이 자금을 토대로 한국학 국제학술회의를 지원한다.

27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아연 60년사』, 제1권(역사편)(아연출판부, 2017), 39쪽.

28 한국연구실 엮음, 『한국의 전통과 변천』(아세아문제연구소, 1973), 1쪽.

한국의 변화상을 다루는 주제였다. ‘한국의 전통과 변천’이라는 주제는 한국의 전통을 탐구한다는 역사적 접근법과 근대화 이후 한국의 변천을 다루는 사회과학적 접근법의 조화를 꾀하고자 했다.

한국학 회의 개최의 최종 날짜는 1969년 9월 1일로 결정되었다. 최초의 학술회의 계획안은 다음과 같았다.²⁹

한국(소속대학 기준) 측 발표자()은 회의 당시 발표 제목³⁰

고병익(서울대), 이조 한국인의 외국관[이조시대 한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관념, Korean Conceptions of Foreigners during the Yi dynasty]

이해영(서울대), 한국 농촌에 있어서의 전통과 변화[한국 농촌의 전통과 변화]

한우근(서울대), 동학란의 리더쉽[동학의 리더쉽]

함병춘(연세대), 권력의 정당성[한국의 정치적 정통성: 과거와 현재, Korean Political Legitimacy: Yesterday and Today]

조기준(고려대), 한국에 있어서의 근대기업가의 형성[한국 민족기업 형성 및 성격에 관한 연구, Formation and Character of National Entrepreneurship in Korea: The Kyongsong Textile Co.: A Case Study]

한배호(중앙대), 한국 파벌정치의 변모상[이론적 전망으로 본 한국의 파벌정치]

문승규(전북대), 한국농촌에 있어서의 육아관행[한국농촌에 있어서의 육아

29 참석자 명단과 소속은 아세아문제연구소 위임(집필자: 김태진),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년지』(아세아문제연구소, 1977), 126-128, 238쪽을 참고해 재구성했다.

30 발표 제목은 본래 영문이다. 이는 록펠러 재단 문서고 사서와의 이메일 문의를 통해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록펠러 재단 문서고가 문을 닫은 미증유의 상황 속에서 필자의 여러 요청에 친절히 응해준 사서 Bethany씨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록펠러 재단은 사회과학연구협의회를 지원했기에 사회과학연구협회의 지원을 받은 한국학 회의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관행, Child Training Practices in Rural Korea]

이기백(서강대), 한국전통사회에서의 신분세습과 유동[고려 사회에서의
신분의 세습과 변천]

미국(소속대학 기준) 측 발표자

마이클 로저스(버클리대), 한중문화 교차의 유형[신라-고려기의 조선과 중
국의 자세, Sino-Korean Attitudes from Silla to Koryo]

제임스 팔레(워싱턴대), 강화조약 당시 한국의 대외태도[이조 시대의 안정
성, Stability in Yi Dynasty Korea: Equilibrium Systems and Marginal Adjustment]

김한교(신시내티대), 일본식민통치의 유산[한국에 있어서의 일본 식민지
통치의 유산, Legacies of the Japanese Colonial Rule in Korea]

빈센트 브란트(하버드대 졸업 후 한국 체재), 변천 과정 중의 농촌사회구조
[서울의 빈민가와 이농민, Seoul Slums and the Rural Migrants]

서상철(클라크대), 현대 한국의 경제발전[일제 식민지 하의 한국경제 발전과
근대화, Colonial Development and Modernization of the Korean Economy,
1910-1940]

강희웅(하와이대), 한국전통 엘리트의 지속성과 변화성[고려 초 과거 제도의
도입에 관한 소고, Institutional Borrowing: The Case of the Kwago in Early
Koryo]

펠릭스 무스(캔사스대), 현대 한국의 강제문화이식[한국의 급속한 문화수용
에 관한 고찰, Some Aspects of Rapid Acculturation in Korea]

이 회의는 1969년 8월 한국 측 참가진의 전체 회의를 먼저 진행한 후,
1969년 9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5일 간 서울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진행되었
다. 후에 이영호(조지아대학교)와 메이너 소프(Maner Thorpe, 캘리포니아

대)의 발표가 추가되었다.³¹ 한국 측 참가자만 일람해보면 고병익, 이해영, 함병춘, 조기준은 1965년 아세아문제연구소 근대화 회의에 참석했던 인물 이었고, 한우근과 이기백은 하버드 엔칭연구소를, 한배호는 미국에서 학부, 대학원 경험을, 문승규는 캐나다 매니토바대학교에서 농촌사회학 교수직 을 역임한 인물이기도 했다. 1969년 8월 한국 측 참가진의 전체 회의가 먼저 진행되었고, 1969년 9월 1일부터 6일까지 서울 아카데미하우스에서 본 회의가 열렸다. 다음 장에서는 이 회의의 논의에서 한국의 '전통'과 '변화'가 어떻게 배치되고 있었는지를 살핀다.

Ⅲ. 배치되는 한국학

1. 중국학과 한국학을 구별하기

한국학 국제학술회의의 첫 주제는 '한국과 외부 세계'였다. 한반도와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어떻게 역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한국학의 존재 가능성과도 맞닿아 있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과의 관계였다. 존 페어뱅크(John K. Fairbank)와 에드윈 라이샤워(Edwin O. Reischauer)가 함께 집필한 『동양문화사』에서 전통 한국을 설명하는 방식은 중국 문화유형의 한 변형(variant)이었다. 한국학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중국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정치체로

31 메이너 소프는 1961년부터 1963년까지 경상남도 진양군 금사면 속사리(현 진주시)에 대한 현지 조사에 입각한 "Structure of Behavior in Agricultural and Related Labor in a Korean Rural Community"를 1964년 하버드대학교 인류학과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했다. 이 날 발표된 메이너 소프의 글 "머슴 계급의 변천"은 단행본 편집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볼 수 있어야만 했다.³²

이와 같은 어려운 과업에 도전한 인물이 바로 마이클 로저스(Michael C. Rogers, 1923-2005) 캘리포니아대학교(버클리 캠퍼스) 교수였다. 1953년 캘리포니아대학교 동양언어학과(Oriental Languages)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로저스는 같은 과에서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를 강의했다. 1956년에는 『한국어 문법서』(*Outline of Korean Grammar*)를 출간했으며, 이후 고려 시대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관계사를 연구했다. 한문만이 아니라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할 수 있었기에 여러 국가와 민족이 활동하는 이 시기에 주목하는 게 가능했다.

1950년대 후반부터 마이클 로저스는 한국과 중국의 사료를 교차 활용하면서, 송-고려 관계, 요, 금과 고려의 관계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해왔다. 특히 그는 각 국가의 정치 변동과 대외 관계의 변화를 능숙하게 연결하는 동시에, 고려가 국제관계의 변화 속에서 중국에 대한 인식을 조정하고, 세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과정까지 시야에 두고 있었다.

1968년 존 페어뱅크가 편집한 『중국적 세계 질서』(*The Chinese World Order*)가 출간된 이후, 주로 조선과 명/청 관계를 모델로 하여 한국은 중국적 세계 질서 하에서 중국과 전형적인 조공 관계를 맺어왔다는 해석이 확산되고 있었다. 페어뱅크의 분류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 내부의 정치질서와 문화가 외부로 연장된 중국 문화권(The Sinic Zone)로 분류되었다. 이는

32 이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한국인 학자들이 직면하게 될 핵심 질문이었다. 일례로 1963년 캘리포니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의 서문에서 손보기는 한국이 '작은 중국'(little China)인지 중국 제도와 문화의 '소우주'(microcosm)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소우주'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전통에서 중국의 그림자를 지우는 일은 그리 쉽지 않았다. Sohn Pow-key, "Social History of the Early Yi Dynasty 1392-1592: With Emphasis on the Functional Aspects of Governmental Structure", University of California Ph. D. Dissertation, 1963, p. 3.

존 페어뱅크와 에드윈 라이샤워가 함께 쓴 『동양문화사』의 한국 인식과도 상통했다.

그렇다면 중국학의 일부로서 한반도의 역사를 다루어도 되는 것일까. 로저스는 이와 같은 통념에 의문을 품었다. 통일신라는 완전한 독립국가였으며, 중국 문명의 혜택에 참여하는 대가로 당나라에 대한 조공 관계를 자진(自進) 인정했을 뿐이었다.³³ 오히려 역사적으로 볼 때 신라와 당나라 관계 이전까지는 중국의 대외정책에는 일반적 공식이 없었다.³⁴ 오히려 로저스는 신라의 스스로의 선택으로 중국적 세계 질서가 형성될 수 있다는 시각을 견지했다.

로저스는 중국적 세계 질서의 ‘연장’으로서 한반도의 역사를 접근하지 않고, 한반도 국가가 이와 같은 세계 질서에 동참하여 얻어낸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반도 왕국이야말로 중국이 오랫동안 가졌었던 대외 관계 철학의 실현”이라는 말은 중국 측 기록이었기에 이를 비판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로저스는 이와 같은 유교적 미사여구로 심하게 꾸며져 있는 수사적 기록의 이면에 존재하는 고려-요/금 관계의 실상을 독해하고자 노력했다.³⁵

로저스가 주목한 시기인 송대는 중국과 다른 국가들의 세력 관계가 ‘외교적 동격(China Among Equals)’인 시기였다.³⁶ 이민족 국가들과 고려는

33 마이클 로저스(로저스), 「신라-고려기의 조선과 중국의 자세」, 『한국의 전통과 변천』(아세아문제연구소, 1973), 4쪽.

34 마이클 로저스(1973), 위의 논문, 3쪽.

35 마이클 로저스(1973), 위의 논문, 3쪽.

36 마이클 로저스는 훗날 페어뱅크의 모델론을 비판하는 *China Among Equals*의 필자로 참여한다. Michael C. Rogers, “National Consciousness in Medieval Korea”, Morris Rossabi ed., *China Among Equals: The Middle Kingdom and Its Neighbors, 10th-14th Centuries*(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로저스의 이 글은 1969년 발표문과 내용이 상당 부분 겹친다.

이 질서의 '동참자'로서 중국적 세계 질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만리장성을 넘어선 지역에서도 '중국적' 세계 질서는 이 질서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전유할 수 있었다.³⁷ 로저스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나타난 중국적 세계 질서 속의 고려의 지위에 대한 관념의 발전에 주목했다.³⁸

고려인들의 행동과 세계관이 반영된 텍스트들은 그런 의미에서 로저스에게 최상의 사료였다. 고려는 한반도 국가이기도 했지만 '고려'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고구려적 정체성을 계승한 국가이기도 했다. 이 두 조합은 이 시기 한반도 국가의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해냈다.

로저스는 고려의 노선 덕에 고려가 끝내 중국의 한 지역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오히려 고려는 중국에 대한 의례적, 수사적 의무를 수행하면서도 완전한 행동의 자유를 누렸다.³⁹ 그는 거란의 침입시 이루어졌다고 알려진 서희와 소손녕의 담판을 완전히 새롭게 재해석했다. 로저스는 서희와 소손녕의 담판이 일종의 정치적 목적을 담은 기록이라고 주장했다. 거란 측의 인식을 담은 『거란국지』에 서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서희의 이야기는, 로저스가 볼 때 역사 그 자체가 아니라 요나라에 영토를 할양하고 형제의 지위를 맺은 송나라보다 요나라를 상대하여 강동 6주를 획득한 고려의 자부심을 세우고자 하는 후대의 분위기가 반영된 '정치적' 기록이었다.⁴⁰

물론 이와 같은 로저스의 해석을 두고 회의에 참석한 이병도를 비롯한 국내의 역사학자들은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로저스는 서희의 이야기가 창작되었다고 분석하면서 송나라로 대표되는 중국을 상대화하고

37 Michael C. Rogers, "The Chinese World Order in Its Transmural Extension: The Case of Chin and Koryo", *Korean Studies Forum*, No. 4(1978).

38 마이클 로저스(1973), 앞의 논문, 3쪽.

39 마이클 로저스(1973), 위의 논문, 7쪽.

40 마이클 로저스(1973), 위의 논문, 12쪽.

자 했던 고려인의 세계감각에 주목하고자 했다.⁴¹

이어 이 회의에서는 고려의 과거 제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하와이 대학교의 강희웅(Hugh Kang, 1931-)은 「고려 초 과거 제도의 도입에 관한 소고」를 발표했다.⁴² 강희웅은 과거 제도를 통해서 혈통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사회 제도가 능력 중심의 사회로 진보해 나갔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수나라 시대에 시작된 중국의 과거 제도는 이미 당대 한반도에 잘 알려져 있었고, 당나라에 과거에 합격한 신라인은 수적으로 보면 마치 일본 통치기의 일본 유학생과 6·25 이후 미국 유학생을 방불케할 정도였다.⁴³

강희웅은 중국식 제도인 과거 제도가 어떻게 고려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그 답은 고려인 스스로 유교 지식을 소화했다는 사실이었다. 즉 강희웅은 ‘중국식’ 문관 등용제인 과거 제도 자체보다는 과거 제도가 무난히 이식될 수 있는 토양으로서 그 무렵 고려 사회의 식자층이 중국의 학문을 완전히 소화해내고 있었다는 내부적 요소에 더 주목했다.⁴⁴ 그가 보기에 과거 제도는 한국 전통사회가 외국의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한 하나의 사례였다.⁴⁵

41 이병도는 “한국사가 중국의 기록을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식민지 사관에 입각했던 일제 사학자보다도 한술 더 뜨는 것”이라며 로저스의 논의를 비판했다. 「한국사에 중국 기록 중시한 미 학자」, 《경향신문》, 1969년 9월 6일자.

42 이 논문은 훗날 다른 지면에서 발표된다. H. W. Kang, “Institutional Borrowing: The Case of the Chinese Civil Service Examination System in Early Koryo”,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34, No. 1(1974). 강희웅은 1964년 워싱턴대학교에서 “신라 말기와 고려 초의 지배 계급의 발전(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ruling class from late Silla to early Koryo)”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43 강희웅, 「고려 초 과거 제도의 도입에 관한 소고」, 『한국의 전통과 변천』(아세아문예연구소, 1973), 261쪽. 각주 2번.

44 강희웅(1973), 위의 논문, 277쪽.

45 1969년 한국학 회의에서 이기백은 이와 같은 기능 중심의 신분제가 일종의 역사적 ‘진보’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기백은 이와 같은 내러티브를 통해 한국사의 ‘정적’인 측면보다 ‘동적’인 면을 검토하면서 한국사의 발전상을 독해해내고자 했다.

훗날의 한 강연에서 강희웅은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비교하면서 신라고려 교체기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즉 선진 문화인 당나라의 지식과 그 문물의 수입과 수용이라는 면에서 보면 10세기의 우리 조상들은 우등생 중의 우등생이고 이에 반해 일본은 결과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낙제생이었지요. 10세기의 일본은 과거 제도의 성공적이고 지속적인 도입은 말할 것도 없고 당대 중국 문물의 도입을 아주 포기하게 되었지요. 그 결과 일본 사회는 이때부터 오히려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세계사를 연구해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회가 발전되어 가는 표시 중의 하나가 권력 기반의 사회적 확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사회 발전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갈 때 변화하는 사회질서 체제는 확실히 비약적인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⁴⁶

즉 강희웅에게 과거 제도 도입으로 대표되는 ‘중국화’는 일종의 선진 문물의 수입이었으며, 이는 1960년대의 용어로 번역하면 일종의 ‘근대화’와 같았다. 로저스와 강희웅 모두 중국의 일부로서 고려를 해석하지 않고, 중국적 세계 질서 속에서 고려가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그리고 그 상황을 고려가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 또 고려가 ‘중국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자체적인 역량이 무엇이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고려가 얼마나 우등생이었는지를 강조했다.

이와 같은 역사 탐구는 한국사의 ‘전통’에서 근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이기백, 「고려 사회에서의 신분의 세습과 변동」, 『한국의 전통과 변천』(아세아문예연구소, 1973), 249쪽.

46 강희웅, 「한 재미 한국인 역사학자가 본 한국 역사」, 국민대학교 목요특강. 2000년 6월 1일. www.kookmin.ac.kr/FUNC/BBS/comp/empty_skin_thursday.htm?mode=view&num=123에서 강연 내용을 확인했다.

능력을 찾는 작업에 가까웠다. 이는 1965년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가 개최한 아시아에서의 근대화 회의에서 나타난 전통 인식과는 다소 결이 다른 인식이었다. 1965년 근대화 회의를 상세하게 분석한 김인수에 따르면 이 회의의 전통 개념은 부정적인 것이자, 오히려 몰가치적인 것에 가까웠다.⁴⁷ 1969년 한국학 국제학술회의 전통의 논의는 1960년대 미국 말 근대화론이 한국 학계에 확산되면서 한국의 전통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변화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근대화론의 확산과 함께 전통에서 근대에 부합하는 특정한 요소를 발견하려는 시각이 강해지는 것이다.⁴⁸

2. 전통의 유산 상속

그렇다면 고려를 이은 조선 시대는 어떻게 이해되고 있었을까. 고려가 누렸던 다원적인 국제 환경이 아니라, 중국 대륙에 통일 왕조가 수립되는 경우 '선진' 문물로서 중국 문화를 수용한 한반도의 정체성은 어떻게 변했을까.

제임스 팔레(James Palais, 1934-2006)⁴⁹는 「이조 시대의 안정성: 평형제도와 한계조절」을 발표했다. 팔레가 조선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주목한 특징은 조선 왕조의 '장기적 안정'이었다.⁵⁰ 먼저 팔레가 꼽은 안정의 요소는

47 김인수, 「한국의 초기 사회학과 '아연 회의'(1965)」, 『사이間SAI』 22호(2017), 61쪽.

48 1960년대 중반 한국 학계에 확산된 근대화론과 이에 대한 한국 학계의 대응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으로는 신주백, 「1960년대 '근대화론'의 학계 유입과 한국사 연구: '근대화'를 주제로 내세운 학술기획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126호(2017).

49 제임스 팔레는 1956년 하버드대학교 졸업 후, 1957년-1959년 주한미군으로 근무했고, 1963-1965년에 한국에 와서 규장각에서 자료를 보며 한우근(한우근은 1960-1962년 하버드대학교에 체류하면서 팔레와 인연을 맺었다)과 협력했다. 제임스 팔레의 개인사에 대해서는 한홍구와 제임스 팔레의 대담이 유용하다. 제임스 팔레·한홍구, 「미국 한국학의 선구자 제임스 팔레: 정년 기념 대담」, 『정신문화연구』 24권 2호(2001).

50 제임스 팔레이스(팔레), 「이조 시대의 안정성: 평형제도와 한계조절」, 『한국의 전

국제 환경이었다. 조선은 주변적 위치와 전통적인 쇄국 정책, 그리고 서양의 관심이 중국과 일본에 집중되며, 조선은 국제정치의 흐름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⁵¹

하지만 팔레는 조선의 내부적 요소에서 장기 지속의 조건을 찾고자 했다. 조선은 변화에 완전히 저항하거나, 무감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선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국가 내부에 있었기 때문에 오래 지속될 수 있었다.⁵² 팔레는 조선 왕조의 균형적인 통치 제도에서 답을 찾았다. 조선 정부는 인민에게 수입을 걷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제도를 발전시켰다. 이들 제도는 국가의 수입을 최대한으로 늘리고, 양반 귀족계급의 특권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그러한 조건이 충족된 한에서 가급적 공정한 과세제를 유지하고, 일반농민의 생계를 기아와 수탈을 겨우 면할만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⁵³

팔레는 이를 한계조정(marginal adjustment)으로 개념화했다. 즉, 이 말은 형편에 맞게 미세 '조정'만 했지, 근본적인 개혁 조치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포착한 말이었다. 이는 조선 사회를 이끄는 국왕과 양반 관료 사이의 권력 관계가 균형(equilibrium)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조선이 지닌 장점은 1876년 이후 급속한 적응력이 필요할 때에는 적용되지 못했다.⁵⁴ 팔레의 주장을 좀 더 확장해본다면 조선은 지속성에서는 장점이 있었지만 변화에는 단점이 있는 체제였다. 결국 조선은 자체적인 근대화를 이루어 낼 수 없었다. 이는 '민족주의적'인 주장과는 다소 결이 다른 해석이

통과 변천』(아세아문제연구소, 1973), 283쪽. 팔레의 이 글은 James B. Palais, "Stability in Yi Dynasty Korea: Equilibrium Systems and Marginal Adjustment", *Occasional Papers on Korea*, Vol. 3(1975)에 발표되었다.

51 제임스 팔레(1973), 앞의 논문, 283쪽.

52 제임스 팔레(1973), 위의 논문, 285쪽.

53 제임스 팔레(1973), 위의 논문, 293쪽.

54 제임스 팔레(1973), 위의 논문, 299쪽.

었다. 하지만 이 회의를 보도한 언론에 따르면 당대의 논의에서 팔레의 주장은 명나라와 청나라에 맞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500년 동안 지켜온 조선의 문화수용력에 대한 예찬으로 독해되었다.⁵⁵

이 회의에서 식민지 시기를 다루는 발표를 맡은 이는 서상철(1935-1983)⁵⁶이었다. 서상철의 작업은 한국경제사의 근대화의 시점으로 식민지 시기를 끄는 연구를 실증적으로 논박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서상철은 「일제 식민지 하의 한국경제 발전과 근대화: 1910-1940」에서 사이먼 쿠즈네츠(Simon Kuznets)의 기준에 따라 근대적 경제성장을 전체적 생산과 1인당 생산의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상승으로 정의했다.⁵⁷

그의 분석에 따르면 식민지 시기 한국에서 진행된 경제성장의 힘은 한국경제 내부에서 오지 않았다. 오히려 그 무렵의 성장은 식민지 정권과 소수의 사회적 엘리트(한국에 거주하는 일본 거류민)에 의해 '부과된 것'(imposed)이었다.⁵⁸ 이처럼 서상철은 한국에서 1930년대 산업화가 진행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한국경제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일본의 만주 점령에 따른 한국의 전략적 지위에서 부과된 것으로 해석했다.⁵⁹

55 「되새긴 전통의 가변성」, 《동아일보》, 1969년 9월 9일자.

56 서상철은 1935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했다가, 대학 재학 중인 1955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1958년 클라크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59년 클라크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64년에 하버드대학교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상철은 하버드대학교에서 경제성장론 전문가 사이먼 쿠즈네츠(Simon Kuznets)와 일본 경제 전문가 헨리 로조브스키(Henry Rosovsky)의 지도를 받았다. 학술회의 당시에는 세계은행에서 근무 중이었다.

57 서상철, 「일제 식민지 하의 한국경제 발전과 근대화: 1910-1940」, 『한국의 전통과 변천』(아세아문제연구소, 1973), 210쪽.

58 서상철(1973), 위의 논문, 224쪽.

59 서상철(1973), 위의 논문, 225쪽. 같은 회의에서 조기준은 바로 이와 같은 식민지적 속성 때문에 한국에서는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기업 형성사와는 다른 전개가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서구에서는 초기 공업화 단계에서는 가족회사로 기업이 창립되고, 그것이 성장함에 따라 개방적인 주식회사로 전개되는데 반해,

이에 따라 한국경제는 매우 이원적인 구조로 형성되었다. 제조업은 높은 생산력을 보유했지만 이는 한국경제와는 무관한 요소로 이루어졌고, 대다수의 한국인과 관련된 농업의 생산력은 매우 낮았다.⁶⁰ 서상철은 한국경제 내부의 필요한 제도적, 사회적 변화가 수반되지 않은 급속한 경제 성장은 경제 및 사회구조에 있어 이원적인 사회를 형성했고, 소수의 경제 엘리트와 대다수의 한국인 주민은 분열되고 말았다고 기록했다.⁶¹

일본이 해방 후 한국에 유산으로 남겨준 것은 교통과 통신시설, 현대적 은행과 금융 제도, 공장, 교육과 행정 시설, 한국경제의 경제적 잠재력에 관하여 실시된 각종 조사 등이었다.⁶² 서상철은 식민지적 발전의 과정에서 얻어진 모든 이러한 변화는 한국이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 이후 독립을 쟁취했을 때 경제성장을 위한 유리한 요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의 리더십을 맡는 인간적 요소, 사회적 가치,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조직적인 구조가 필요했다. 식민지적 발전은 이와 같은 것들을 창출해내는데 실패했다.⁶³ 즉 고려,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근대로의 동력이 일본 식민지 시기를 거치면서 외부의 힘으로 굴절된 시기가 일본 식민지 시대였다고 서상철은 냉정히 진단했다.

신시내티대학교의 김한교(1928-)는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 식민지 통치의 유산: 정치문화의 측면을 중심으로」라는 발표를 했다. 이 글은 일제의

후진국 특히 식민지 지배하에서의 민족기업은 처음에는 거족적인 기업회사로 출발하나, 기업의 성공과 더불어 대개 폐쇄적인 족벌회사로 변질해갔다. 조기준, 「한국 민족기업 형성 및 성격에 관한 연구」, 『한국의 전통과 변천』(아세아문예연구원, 1973), 209쪽.

60 서상철(1973), 앞의 논문, 229쪽.

61 서상철(1973), 위의 논문, 239쪽.

62 서상철(1973), 위의 논문, 239쪽.

63 서상철(1973), 위의 논문, 240쪽.

잔재를 청산하자는 민족주의적 논의와 거리가 있었다. 오히려 이 글은 일본 식민치 통치가 현대 한국의 정치문화에 어떤 ‘유산’을 남겼는지를 차분하게 점검했다. 김한교가 볼 때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국가들은 모두 식민지의 유산을 청산하고자 하나, 개개인이 겪은 식민지 시대의 경험을 백지로 환원하는 일은 애초에 불가능했다.⁶⁴

김한교는 그렇기에 식민지 경험이 1945년 이후의 정치적, 사회적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져보고자 했다. 김한교는 외세 지배를 통해서 한국에서 강렬한 민족주의가 등장했다고 보았다. 그렇기에 한국 민족주의의 핵심은 반일주의였다. 해방 뒤에도 반일주의에 기초한 민족주의는 한국인들은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근대화라는 건설적인 과업을 직시하지 못하게 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일본의 식민 지배는 한국인에게 정치참여나 정치적 의사 표시의 기회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 정치에 있어서의 전적인 소원(疎遠), 불신 그리고 반항이 나타났다.⁶⁵ 정치적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은 여러 문제를 일으켰는데, 관료는 인민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더 권위주의적이 되었고, 한국인들은 관료에 대해 불신과 공포, 그리고 적대심을 느꼈다.⁶⁶ 그나마 학생들이 여러 행동에 나서기는 했으나, 자신을 표현할 수단을 지니지 못한 한국인들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해외의 독립운동가들은 내부적인 파벌 투쟁에 시달렸다. 결론적으로 김한교는 일본 식민지 시기의

64 김한교,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 식민지 통치의 유산」, 『한국의 전통과 변천』(아세아문제연구소, 1973), 36쪽. 함병춘은 같은 회의에서 조선조의 정통성을 일본인이 완전히 파괴했으나, 일제의 식민통치의 정통성은 아직 완전히 파괴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여전히 한국의 지도층의 대부분의 식민지 시대를 통해서 교육과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다. 함병춘, 「한국의 정치적 정통성: 과거와 현재」, 『한국의 전통과 변천』(아세아문제연구소, 1973), 332쪽.

65 김한교(1973), 앞의 논문, 42-43쪽.

66 김한교(1973), 위의 논문, 44쪽.

정치문화가 한국인들의 자주적, 민주적 발전을 위한 준비를 전혀 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⁶⁷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한국의 특성은 한국의 '전통'이기도 했지만, 오히려 이 전통은 한국이 지닌 본질이라기보다는 역사의 전개 속에서 장점으로 변화될 수 있는 동적인 특성으로 분석되었다. 즉 이 학술회의는 전통의 가치를 되묻고, 식민지 시대에 결여되었다고 평가를 받은 여러 요소를 미래의 성취되어야 할 무엇으로 제시하는 자리였다.

3. 조사라는 눈

그렇다면 해방 후의 한국인들은 상황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었을까. 미국에서 한국의 정치문화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영호(1935-1994)는 이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 주자였다. 이영호는 이 학술회의에서 「한국의 사회변화와 정치참여」를 발표했다.⁶⁸ 이영호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정치참여 수준은 매우 낮았다. 물론 한국의 투표율은 미국보다 높았다. 하지만 이는 한국인이 미국인보다 정치적인 선호나 요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투표를 잘 활용했다기보다는 정부 당국에 대한 '순종'의 결과물이었다.⁶⁹

하지만 이영호는 이와 같은 자료의 결과에 실망하지 않았다. 그는 한국인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늘어나며, 농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늘고, 기술 노동이나 사무직 종사자의 수가 많아지

67 김한교(1973), 위의 논문, 53쪽.

68 이 글은 이영호의 1965년 예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The Political Culture of Modernizing Society: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Korea"에 기초를 두었으며, 1965년 1월-3월 간 한국에서 실시된 정치문화 표본조사에서 수집하여 조사한 자료에 의거했다.

69 이영호, 「한국의 사회변화와 정치참여」, 『한국의 전통과 변화』(아세아문제연구소, 1973), 66쪽.

는 근대화가 이룩되면 한국인의 정치참여 수준도 저절로 높아질 것으로 희망적인 예측을 했다.⁷⁰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 보자는 논리였으나, 그 뒤에는 한국이 앞으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이와 같은 자신감의 기초는 무엇이었을까.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조사와 현실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점이 필요했다. 당대 한국에는 이와 같은 기준점이 있었다. 이미 1957년에 주한 미 경제협조처 지역사회 개발국은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수집의 일환으로 한국 내 4개 촌락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바 있었다.⁷¹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주한 미 경제협조처는 4개 촌락의 사회, 경제 및 문화적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이해영(1925-1979) 교수에게 재조사를 의뢰했다.⁷²

이 회의에서 발표를 맡은 이해영의 글은 10년 간 어떤 변화가 농촌에서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보고서였다.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통해 민주주의 사상이 전파되었고, 1950년 토지개혁을 통한 일반 농민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통해서 농촌 사회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유교적 교양이나 규범만으로는 사회변화를 담아낼 수가 없었고 이제는 양반이라는 사회적 지위에 따른 위세도 예전 같은 힘을 지닐 수 없었다. 이제 촌락 지도자들은 30-40대의 젊은 사람들이 맡고 있었다.⁷³

한국의 변화상을 한꺼번에 담아낼 수 있는 넓은 개념 틀은 ‘문화수용’(ac-

70 이영호(1973), 위의 논문, 97-98쪽.

71 John E. Mills ed., *Ethno-Sociological Report of Four Korean Villages*(San Francisco: United Nations Command Office of the Economic Coordinator for Korea, 1960). 이는 『4개 촌락 보고서』(1960)로 번역 출간된다.

72 1925년생인 이해영은 1949년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55년부터 1년간 록펠러 재단의 지원을 받아 노스캐롤라이나대학 대학원에서 수학했다. 1962년부터 1년간은 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다.

73 이해영, 「한국 농촌의 전통과 변화」, 『한국의 전통과 변화』(아세아문제연구소, 1973), 108쪽.

culturation)이었다. 이는 캔자스대학교 인류학과의 펠릭스 무스(Felix Moos, 1928)가 「한국의 급속한 문화수용에 관한 고찰」에서 제시한 개념이었다.⁷⁴ 무스는 한국의 근대화를 문화수용의 과정으로 분석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한다.

- 1) 가족, 민족 혹은 다른 가정 집단에 대한 것보다는 오히려 국가에 대한 일반 대중의 충성심으로 이룩되는 정치적 통일
- 2)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것에 근거를 둔 정치적 결정수립
- 3) 귀속(歸屬)이 아닌 능력에 따른 역할 수행
- 4) 사회의 모든 면으로 뻗어 있는 행정 능력
- 5) 단일 언어로 된 높은 수준의 문해율(literacy), 대중 매체로 상징되는 초등 교육 이후의 문해율 교육
- 6)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높은 노동고용(2차와 3차 노동고용의 합이 1차 산업을 초과한다)에 따른 50% 이상의 도시화
- 7) 경제의 복잡성과 다양성(단일 품종 재배나 생산은 국가 경제의 취약성을 높인다)
- 8) 상하류 계층 사이의 경제·사회적 거리의 축소, 인종, 계급 혹은 지위에 따른 차별, 빈곤, 신분 제도의 철폐⁷⁵

무스가 제시한 이와 같은 기준은 한국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일종의 '채점표'였다. 무스는 개발된 사회의 기준을 개발도상에 있는 사회가 점차

74 무스의 이 발표문은 1967년 웨스턴미시간대학교의 세미나에서 발표한 “한국에서의 문화수용(Acculturation in Korea: Processes of a Developing Nation)”을 조금 더 보완한 것이었다.

75 펠릭스 무스, 「한국의 급속한 문화수용에 관한 고찰」, 『한국의 전통과 변천』(아세아문제연구소, 1973), 161-162쪽. 일부 번역문은 무스의 1967년 영문 발표문과 비교하여 수정했다.

산업화되면서 수용해나간다고 분석했다.⁷⁶ 무스가 보기에 이미 한국 사회는 여러 분야에서 문화수용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⁷⁷

한국의 문화수용을 관찰하며, 무스는 한국의 문화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준 것은 미국이나 혹은 서구 문화가 지닌 비물질적 측면이라 지적했다. 여성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개념, 아버지의 지위에 대한 재공식화 그리고 귀속 지위보다 성취 지위가 중요해지는 등, 기존의 한국의 전통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사회적 행위가 한국에 나타났다.⁷⁸

미국이나 서구 문화와의 접촉만으로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또 다른 인류학자 빈센트 브란트(Vincent S. R. Brandt, 1924)⁷⁹는 「서울의 빈민가와 이농민」을 발표했다. 이미 한국의 농촌 사회를 주제로 장기간의 현장 연구를 한 경험이 있는 브란트는 한국의 농촌과 도시를 비교할 수 있는 복안(複眼)을 지닌 인물이었다. 브란트는 한국에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이촌향도 현상이 근대화에 수반되는 현상이라고 파악했다.⁸⁰ 이와 같은 급격한 변화의 의미는 무엇인지, 또 이농민들의 내면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두고, 빈센트 브란트는 꼼꼼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76 펠릭스 무스(1973), 위의 논문, 162쪽.

77 펠릭스 무스(1973), 위의 논문, 162쪽.

78 펠릭스 무스(1973), 위의 논문, 175쪽.

79 1948년 하버드대학교 국제관계학과를 졸업하고 1949-1960년 미국 외교관으로 프랑스, 한국, 일본, 워싱턴 등지에서 근무했다. 1965-1966년 충남 서산군 석포리 농어촌 마을 공동체에서 현장 연구를 했다. 1969년 하버드대학교 사회인류학 박사위를 받았다. 빈센트 브란트의 주저는 석포리 연구에 기반을 둔 *A Korean Village: Between Farm and Sea*(1971). 이 책의 감사의 말에는 이만갑, 함병춘, 펠릭스 무스, 제임스 팔레의 이름이 나온다. 브란트의 한국 생활을 다룬 회고담은 빈센트 브란트, 『한국에서 보낸 나날들』(국사편찬위원회, 2011).

80 빈센트 브란트, 「서울의 빈민가와 이농민」, 『한국의 전통과 변천』(아세아문제연구소, 1973), 141쪽.

브란트는 농촌과 도시 두 사회를 오고 간 사람들은 분명히 갑작스럽고 광폭한 변화를 체험했으리라 가정했다. 그리고 이를 보여줄 수 있는 대상이 바로 농촌 출신으로 도시로 온 이주민, 즉 판자촌 주민들이라 보았다. 판자촌 주민들이 서울로 온 이유는 좀 더 잘 살고 싶기 때문이었다. 이들의 서울행은 농촌의 빈곤이 심해졌기 때문은 아니었다. 실제로 판자촌에 살고 있는 이들 중 많은 수가 빈농이 아니라 중농, 부농 출신이었다. 이들은 농촌에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박차고 나와 도시사회의 최하층에 뛰어든 것이다. 오히려 이들을 움직인 것은 농촌 사회의 답답한 분위기에서 탈출하고 싶은 일종의 '욕망'이었다.⁸¹

브란트는 전통적인 한국 사회의 농촌은 일종의 위계 중심의 이데올로기로 유지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는 근대화의 부산물로 등장한 물질주의의 이데올로기의 도전을 받기 시작했다. 이제 농촌 역시도 물질적인 부의 획득, 계약을 통한 인간 관계 등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농민들은 이미 농촌을 떠나기 전부터 이처럼 부분적으로 '도시화' 되고 '근대화' 되어 있었다.⁸² 판자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과거처럼 공동체와 혈연을 통한 강제력은 점점 약화되고 있었으며 이들은 자수성가한 성공한 비즈니스맨을 모델로, 개인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 전진해나가고 있었다.⁸³ 판자촌은 단순한 '슬럼'이 아니라 한국의 앞으로의 변화를 가능할 수 있는 기대가 담겨있는 공간이라는 점이 브란트의 결론이었다.⁸⁴

81 빈센트 브란트(1973), 위의 논문, 148쪽.

82 빈센트 브란트(1973), 위의 논문, 155쪽.

83 빈센트 브란트(1973), 위의 논문, 158쪽.

84 빈센트 브란트가 판자촌 주민들의 문화수용에 명시적인 가치 판단을 하지 않았던 빈센트 브란트의 현장 조교로 판자촌 조사에 참여했던 한국인 조교들의 기록은 브란트의 관찰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 이들은 한국은 현재 중대한 문화적 위기에 처해 있으며, 건전한 문화변용을 위해서는 농민이 자기가 사는 지역사회에 긍지를

IV. 맺음말

이 글은 한국에서 열린 '최초'의 한국학 국제학술회의인 '한국의 전통과 변천'을 분석했다. 한국학 관련 국제학술회의가 한국에서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학술회의의 공식 언어는 영어였다. 1969년에 국제학술회의가 열릴 수 있었던 것은 한국과 미국 학계의 지적인 상호 교류를 통해서였지만, 이 상호 교류는 이처럼 완전히 평등한 상황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영어와 영어로 대표되는 미국 학계의 우세 속에서 논의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좀 더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 둘의 만남을 통해서 영어로 된, 그리고 한국인 학자들이 참여하는 한국학 학술장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이며, 미국 학계와 한국 학계를 연결한 한국인들의 존재이다. 오히려 이 국제학술회의의 논의는 영어로 된 자료집으로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4년의 시차를 두고 한국어로 번역되어 한국의 독자를 만났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이 글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학은 단순히 한국의 정체성을 역사적으로 계승하고 복원하는 과정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특정한 기억과 상상을 선택과 배제 과정을 통해 재구성하는 일련의 학문적 실천이었다. 한국학이라는 특정한 형태의 지식은 대한민국이라는 주권국가의 탄생과, 미국의 냉전 세계 전략 하에서 지역연구가 합류하면서 등장했다. 학문의 형성에서 외적 맥락을 중시한 기존 연구와 달리, 이 글은 한국학이라는 학술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진행되었는지 상세한 내용

가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이구·최협, 「서울 판자촌의 인류학적 조사」(하), 최협, 『판자촌 일기: 청계천 40년 전』(눈빛, 2012), 184-185쪽. 이 글은 본래 1970년 서울대 문리대 잡지 『형성』 4권 1호에 발표된 글이다.

분석을 시도했다. 중국학과 한국학을 구별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한국의 역사적 전통에서 근대화의 자질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한국의 문화수용을 실제 현장 조사를 통해 검토하며 근대화의 변화를 측정하기도 했다. 학술회의에서 진행된 토론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이 시기에 한국을 해석하는 특정한 서사가 등장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69년의 맥락에서 등장한 특정한 서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중국, 일본과 구분되는 한국의 정체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외교 노선을 통해 중국적 세계 질서 속에서 독립을 유지한 고령이 주목을 받았고, 외부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한 하나의 사례로 과거 제도가 재해석되기도 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왕조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역사적 논의, 일본의 식민 지배가 남긴 정치·경제적 유산을 점검하는 발표도 있었다. 특정한 주제 선정은 한국의 전통을 바라보는 당대의 시선을 반영한다.

또 현재의 시점에서 유의미한 과거의 유산을 재examine하는 태도가 공통적으로 존재했다. 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인문사회과학은 존재하지 않겠지만, 이 시기 ‘한국학’에서 이와 같은 태도는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일본 제국주의를 비판하고, 현재 한국인이 지닌 부정적인 자질을 그 시기로 귀속시키는 태도도 그 일환이었다.

이는 하나의 공통된 결론을 숨기고 있었다. 현재의 한국과 한국인이 근대화에 매우 적절하고, 매우 진도유망하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한국의 변화를 시차를 두고 관찰한 사회과학자들의 실증 조사를 통해 매우 구체적으로 보증되고 있었다. 이 회의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지식 역시 당대에 보급되고 있던 미국 발 근대화 이론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지, 당시 회의에 나온 한 인사의 발언처럼 한국의 상황을 ‘주어진 것’(given)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지는 지금의 우리도 진지하게 대면해야 할 물음이다.⁸⁵

한국학은 미국 학계와 한국 학계의 상호 소통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지만, 이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보편적인 '해석틀'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했다. 이는 당대 미국에서 유행하는 담론을 빌려 한국의 경험을 해석하는 측면이 강했다. 1969년 이후 더욱 활발히 개최되는 한국학 관련 다양한 국제학술회의가 주로 어떤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특정한 서사로 한국을 해석해왔는지, 한국과 관련된 학술장이 어떤 식으로 고착되었는지, 그 안에 은연중에 존재하는 문화냉전적 요소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연구를 기약한다.

85 한배호, 「이론적 전망으로 본 한국의 파벌정치」, 『한국의 전통과 변천』(아세아문제연구소, 1973), 321쪽.

참고문헌

1. 1차 자료

- 강희웅, 「한 재미 한국인 역사학자가 본 한국 역사」. 국민대학교 목요특강, 2000년 6월 1일.
- 빈센트 브란트, 『한국에서 보낸 나날들』. 국사편찬위원회, 2011.
- 아세아문제연구소 엮음(집필자: 김태진),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년지』. 아세아문제연구소, 1977.
- 에드윈 라이샤워·존 페어뱅크 저, 전해중·고병익 역, 『동양문화사(上)』. 을유문화사, 1964.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한국 유네스코 활동사: 1954-1975』.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76.
- 이기백, 『한국사신론』. 일조각, 1967.
- 이선근, 「『한국소사』를 읽고: 동서문화센터에 보내는 나의 몇 가지 질문」, 『민족의 이념과 진로』. 휘문출판사, 1989.
- 전해중, 「서평: *A Short History of Korea*」. 『역사학보』 33권, 1967.
- 조기준, 「아세아를 바로보자: 아세아문제연구소 창립에 제하여」, 『나의 인생, 학문의 역정』. 일신사, 1998.
- 최협, 『관자춘 일기: 청계천 40년 전』. 눈빛, 2012.
- 한국연구실 엮음, 『한국의 전통과 변천』. 아세아문제연구소, 1973.
- Centre for East Asian Cultural Studies, *A Short History of Korea*. Tokyo: East West Center Press, 1963.
- Ledyard, Gari, "A Short History of Korea."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Vol. 85, No. 3, 1965.
- Nahm, Andrew C. ed., *Studies in the Developmental Aspects of Korea*. Kalamazoo: Western Michigan University, 1969.
- Nahm, Andrew C. "The Development of Korean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1, No. 2, 1971.
- Rogers, Michael C. "The Chinese World Order in Its Transmural Extension: The Case of Chin and Koryo." *Korean Studies Forum*, No. 4, 1978.

Rogers, Michael C. "National Consciousness in Medieval Korea." Morris Rossabi ed., *China Among Equals: The Middle Kingdom and Its Neighbors, 10th-14th Centuri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Sohn, Pow-key, Kim Chol-choon, Hong Yi-sup, *The History of Korea*. Seoul: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1970.

Sohn, Pow-key, *Social History of the Early Yi Dynasty 1392-1592: With Emphasis on the Functional Aspects of Governmental Structure*. University of California Ph. D. Dissertation, 1963.

2. 단행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아연 60년사』. 제1권(역사편). 아연출판부, 2017.

3. 논문

김경일, 「한국학의 기원과 계보: 한국과 동아시아, 미국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63권, 2003, 129-167쪽.

_____, 「한국학의 성립과 모색」, 『한국의 근대 형성과 한국학: 비교 역사의 시각』.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0, 279-322쪽.

김인수, 「한국의 초기 사회학과 '아연 회의'(1965)」. 『사이間SAI』 22호, 2017, 37-88쪽.

_____, 「1960-70년대 한국학의 토대와 네트워크」. 『인문논총』 77권 3호, 2020, 59-109쪽.

신주백, 「1960년대 '근대화론'의 학계 유입과 한국사 연구: '근대화'를 주제로 내세운 학술기획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126호, 2017, 45-94쪽.

_____, 「末松保和(1904-1992)의 학술사와 식민주의 역사학: 한국사 학계의 엇박자의 원인을 찾아서」. 『동방학지』 183권, 2018, 189-234쪽.

장세진, 「라이샤워, 동아시아, '권력/지식'의 테크놀로지: 전후 미국의 지역연구와 한국학의 배치」. 『상허학보』 36권, 2012, 87-140쪽.

정중현, 「『학풍』을 통해 본 '한국학' 형성의 한 맥락」. 『제국의 기억과 전유: 1940년대 한국문학의 연속과 비연속』. 어문학사, 2012, 402-434쪽.

_____, 「'조선학/한국학'의 국교정상화: 한국학자들의 '조선학회' 연차대회 참가와 아시아재단의 지원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47권, 2017, 269-305쪽.

채오병, 「냉전과 지역학: 미국의 헤게모니 프로젝트와 그 파열, 1945-1996」. 『사회와 역사』 104권, 2014, 297-333쪽.

국문초록

이 글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The Asiatic Research Center, ARC)와 미국 사회과학연구협의회(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SSRC)-미국 학술단체협의회(American Council of Learned Society, ACLS) 산하의 한국학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 on Korean Studies, JCKS)가 공동으로 개최한 한국에서 열린 최초의 한국학(Korean Studies) 국제학술회의인 “한국의 전통과 변천”을 분석한다.

먼저 이 글은 1969년에 한국학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될 수 있었던 배경이 되는 두 가지 흐름을 검토한다. 하나는 한국 내에서 국학을 세계에 전파하고 알리고자 했던 흐름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축적되는 양상이다. 이 두 가지 흐름이 1960년대 중반부터 한국학/Korean Studies에 대한 지적 관심으로 합류되는 맥락을 상세하게 검토한다.

이어 “한국의 전통과 변천”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회의자료를 분석하면서, 당대의 초창기 한국학 연구자들이 추구했던 지적인 목표를 분석한다. 먼저 초창기 한국학 연구자들은 중국학, 일본학으로부터 한국학을 ‘독립’시키고자 했다. 주로 역사학자들이 이와 같은 작업을 맡았다. 동시에 역사학자들은 한국의 ‘전통’에서 근대화로 나아갈 수 있는 자질을 탐색하려 했다. 이어 사회과학자들은 한국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구체적인 현장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1969년 한국학 학술회의에서 등장한 여러 담론들은 한국학/Korean Studies의 형성에서 끊임없이 제기될 질문의 선구격이었다.

투고일 2020. 9. 22.

심사일 2020. 11. 5.

게재 확정일 2021. 2. 17.

주제어(keyword) 한국학(Korean Studies),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Asiatic Research Center), 국제학술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한국의 전통과 변천(Tradition and Change in Korea)

Abstracts

Topology of the Korean Studies: Focusing on the Conference on Tradition and Change in Korea, 1969

OK, Chang-Joon

This study seeks to focus on the ways of early formation of Korean studies. The materials analyzed mainly consist of first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on Korean Studies hosted by the Asiatic Research Center(ARC) at Korea University, 1969. It was the first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held on the topic of "Korean studies."

The contents of the 1969 academic conference can be seen as the material that better demonstrates the ways in which the modernization theory has been applied to the examination of Korea. The participants sought to reconstruct not only Korea's "tradition" but also "change" as well as the nation as it was at the time rather than its past per se. By examining in detail the process, it will be possible to explore the origins of problems related to the identity of academic learning that have surfaced i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Korean studies today.

